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김 성 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건설의 대번영기,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세계를 놀래우는 이 모든 전변들은 건설을 중시하고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정확한 결심과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건설은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은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다.

건설이 나라의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라는것은 건설의 규모와 속도, 건설물의 질적수준에 의하여 해당 나라의 국력과 문명의 정도가 직관적으로 평가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건설을 통하여 그 나라의 잠재력과 사람들의 물질적요구, 생활습성, 감정정서, 지적수준과 미적취미를 비롯한 문명의 높이를 가늠할수 있다는것이다.

건설이 나라의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되는것은 건설사업의 성과가 나라의 경제력, 과학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은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과 예술지식 및 기교를 요구하는 창조사업인것만큼 나라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발전, 문화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력은 건설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되며 과학기술발전은 건설사업에서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합리화를 실현하여 현대적이며 경제적인 건설물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

고대시기 나무, 돌, 해빛에 말린 벽돌의 리용은 고대의 궁전과 신전 등과 함께 촌락들을 건설할수 있게 하였으며 정력학적원리를 응용한 구조법은 고대건축물들에 아치를 적용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던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과학적인 력학개념이 건설에 도입되었으며 힘의 합성, 재료의 구부림, 응력문제들이 해명되고 건설물을 보다 실감있게 작도할수 있는 투시도법이 나와 건설물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성할수 있었다.

1920년—1930년사이에 철근콘크리트의 판구조리론과 예비응력콘크리트의 리용 그리고 193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용접기술의 발전은 건설을 적은 자재로 손쉽게 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공기조화기술과 조명 및 음향기술 등 건축설비기술의 리용은 건설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목조건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건물제로, 단층건물로부터 다층건물제로, 단순한 류형과

구조로부터 복잡한 유형과 구조에로의 건설물의 력사적발전도 모두 생산력과 과학기술력에 의하여 이룩된것이였다.

문화의 발전도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화의 발전은 사람의 사상의식을 높여주고 미적감정을 풍부화해줌으로써 건설물에 대한 높은 미적요구를 제기하게 하며 새로운 건설물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

원래 건설은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거처지를 마련하는데서 시작된것이였지만 사람들의 미적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조형적, 상징적공간을 만들기 위한것으로 발전하였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그들은 점차 생활공간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건축창조에서 일정한 미학적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건설에 예술성이 부여되게 되었으며 실용성과 함께 예술성도 건설물의 중요한 질적속성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예술성이 사람의 미학적요구와 관련되는 속성인것만큼 문화가 발전하여 사람들의 미학적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예술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을 중요한 속성으로 하는 건설물의 질적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력과 과학기술, 문화는 건설물의 규모의 방대성, 그 질과 예술성을 규정짓는 근본담보로 된다.

경제력과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되는 건설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정도를 직접 표현한다.

정치사상적힘, 군사력과 함께 경제력 및 과학기술력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력의 기본요소이다.

한편 문화의 발전수준은 해당 나라의 문명정도를 표현한다.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습성, 도덕 및 정서생활, 과학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전반적문화의 개화정도가 바로 문명의 높이를 규정한다.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 과학기술 및 문화의 발전높이는 나라의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경제력 및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높이이자 곧 그 나라 건설의 발전높이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건설물을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우리식으로 창조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탄과 매혹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건설은 다음으로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으며 인민적시책을 끊임없이 베풀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에서 건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건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베푸는 인민적시책은 그 폭과 내용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는것이다.

건설은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및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건설활동은 생활거처를 위한 살림집을 짓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여러가지 규모와 형식의 살림집과 함께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진 공공건물들, 생산건물들, 도시와 마을들을 일떠세우는데로 발전하게 되었다.

건설은 결국 사람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람은 살림집이 있어야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으며 공장이 있어야 기계를 만들고 천을 짤수 있으며 극장과 영화관, 공원과 유원지가 있어야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건설물은 사람의 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창조물들가운데서 사람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건설물이 없이는 초보적인 물질생활조건이 보장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로부터 건설물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창조와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물론 건설은 어느 사회제도에서나 다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적인 사업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이 사회를 지배하고 인민대중을 억누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적지위와 특전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받는것만큼 건설도 착취계급에게 복무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이 도시의 중심부와 경치좋은 곳에 권력기관과 유흥장, 호화주택을 건설하고 거리마다에 초고층건물들 빼곡이 세우는것은 자기의 권세를 뽐내고 위엄을 돋구며 인민대중에게 위압감을 주어 그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자기에겐 순종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건설의 모든 물질적수단이 극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되어있고 건설이 그들의 향락과 리윤추구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기때문에 인민대중을 위한 건설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우리 나라에서는 건설이 곧 인민대중에게 로동조건, 생활조건, 휴식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기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복무하며 도시와 농촌마을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우리들은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도, 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적요구에 맞게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여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할것이다.